

전기 에너지 품질 1위

우리나라의 전기 에너지 품질이 세계 1위 평가를 받았다.

프랑스 유력 일간 르 피가로는 국제 컨설팅 업체 KPMG가 전 세계 14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기 에너지 평가 결과를 인용해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함께 품질 면에서 공동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달 26일 보도했다.

KPMG는 최근 프랑스 슈아셀 연구소와 함께 146개국을 대상으로 전기 에너지의 품질, 호환성, 기타 조건 등 범주에서 13개 지표를 평가했다.

종합 순위에서는 노르웨이가 1위를 차지했고, 캐나다, 아이슬란드, 콜롬비아, 뉴질랜드, 프랑스 등이 10위권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품질 부문에서 1위를 했으나 종합 순위에서는 벨기에, 파라과이와 함께 공동 21위에 올랐다. 일본은 25위, 중국은 50위, 북한은 112위를 기록했다.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미주 및 아시아보다 전력 공급이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대형건물 난방 20도 넘으면 300만 원 과태료

● 공공기관은 18도 이하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올겨울 예상되는 전력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 대형건물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단속에 나선다. 난방온도를 지키지 못한 대형건물에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삼걸 제2차관 주재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열고 전력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민간 대형건물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는지 단속에 나선다. 지식경제부는 관련고시를 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난방 온도를 지키지 않는 대형건물에 대해 한 차례 위반 시 50만 원, 지속 위반 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또 중앙정부·공공기관과 같이 겨울철 청사 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고 전력경보 중 주의단계가 발령되면 공공기관부터 우선 단전을 하기로 했다. 지자체 청사가 온도를 지키는지는 총리실이 점검한다.



정부가 내년도 전력수요관리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전력사용 급증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절전지원금 지출이 크게 늘자 운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4일 지식경제부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는 내년에 총 2조5690억 원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지식경제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했다. 올해 기금 총액(2조1970억 원)보다 3720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올해 기금이 지난해(2조996억 원)보다 974억 원이 증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확대 폭이 네 배나 늘어난 셈이다. 정부의 전력산업기반 기금 확대 기조에 따라 내년 전력수급 대책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수요관리가 중심이 되어 전개될 전망이다.

전력업계는 올해 절전지원금 지출이 크게 늘었던 만큼 늘린 기금 대부분이 수요 관리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수요관리 부문 당초 예산은 666억 원이었으나 지금까지 실제 지출은 2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경부는 신규 연구 개발 사업과 함께 수요관리 자원 확보 차원에서 기금 규모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기금 확대로 연구개발 및 전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배정한 자금이 수요 관리로 전용돼오던 부작용도 없을 전망이다. 추가되는 3720억 원의 기금 사용처는 지경위의 기금운용계획 심의와 의결이 종료된 후 정해진다.



전력수요관리예산 대폭 확대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저장 부지 선정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사회적 수용성을 최대한 확보해 가면서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 자문기구로서 위원구성은 인문·사회과학, 기술공학, 시민사회계, 원전지역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 프로그램을 통해 대국민 공론화를 추진하게 되며 논의주제는 한정되지 않지만 중간저장 등 중단기

사용후핵연료 부지 2015년 선정 돌입

현실적 대안 모색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까지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대정부 권고서 형태로 지경부와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제출된다. 지경부는 2014년까지 공론화위원회 권고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부지선정계획 및 투자계획이 포함된 법정계획인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부지선정 절차 및 건설에 착수하게 된다.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국내 적자해소

글로벌 최고 녹색·스마트 에너지 분야 선도기업이란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전력공사(KEPCO)의 수익창출 기반은 인재경영이다. 2008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약 4년 반 동안 한전의 누적적자는 10조9000억 원(한전 별도 기준)이다. 더욱이 국내 전력시장은 성장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사업 시프트(이동) 인력에 대한 교육 설계는 이 같은 절박함에서 출발한다.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전은 올해 해외사업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인력과 해외사업 예비인력으로 분류하고 특히 해외사업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원자력 분야, 화력발전 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제계약·금융·예산·회계·법률·노무 분야 등 여러 코스로 구분하여 활동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시장 위주의 사업운영체제를 벗어나 해외사업 진출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새로운 영역, 새로운 콘텐츠로의 진출 역량 확보를 위한 사전조치인 셈이다.



대표적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사명감과 도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10주간의 집중합숙교육을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언어 교육 ▲해외사업지원 분야 교육 ▲공정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액티비티 교육 등이 진행 중이다.

발전5사, 유연탄 수송선 공동 입찰

5개 발전공기업들이 유연탄 수송선을 전세내기 위한 공동입찰에 처음 나선다. 발전회사협력본부(본부장 박종훈)에 따르면,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상호)은 발전5사를 대표해 국내선사를 상대로 15만t급 벌크선 9척을 지난달 26일 발주했다. 적격심사에 통과한 업체들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회사가 수주하는 형태다.

입찰참가자격은 외항운송 사업면허를 보유한 국내선사로 연간 100만t 이상 유연탄이나 철광석을 싣고 다녀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발전사나 제철사에 1년 이상 장기 수송계약을 이행해본 실적을 갖고 있는 해운사도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국내 선사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선박건조는 국내 소재 조선소로 제한된다. 국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계약기간은 18년이다. 발주물량은 2015년부터 발전회사별 소요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투입된다.

발전회사협력본부는 2010년 8월 지식경제부가 마련한 '전력산업구조 발전 방안'에 따라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의 공조와 협력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이지는 취지로 지난해 1월 설립됐다.

● 인도네시아 해외동반진출 중소기업 현지법인 개소

한국중부발전(사장 최평택)은 지난달 23일 중소기업 10개사로 구성된 '해외동반진출협의회'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법인(SSH) 개소식을 발전 산업계 최초로 가졌다.

해외전문무역상사인 현지법인(SSH)은 해외동반진출협의회 회원인 중소기업 10개사의 제품을 중부발전이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발전소에 판매하는 매개체로서 해외동반진출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해외동반진출협의회 현지법인은 올 4월 현지 사무실을 연 이후 중부발전의 인도네시아 현지 발전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판촉활동을 벌였으며, 9월까지 6만 달러의 수주를 달성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찌레본, 탄중자티, 암푸수력 발전소 등을 상대로 47만 달러의 견적을 제출하고 있으며 향후 꾸준한 판매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부발전은 앞으로도 10여 개국에서 추진하는 해외사업에 해외동반진출협의회 소속 중소기업과 함께 진출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을 2020년까지 5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부발전,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진출



서부발전, 태안화력 9, 10호기 착공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문덕)이 태안화력발전소 9, 10호기 건설을 본격화했다.

서부발전은 지난달 7일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건설본부 현장에서 진태구 태안 군수와 협력업체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 9, 10호기 착공 기념행사'를 가졌다.

각각 1050MW급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로 지어질 태안화력 9, 10호기 건설에는 총공사비 3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서부발전은 오는 2016년 6월에 9호기를 준공하고 같은 해 12월 10호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계는 한국전력기술이 담당하고 일본 히타치·대림산업 컨소시엄은 보일러와 터빈 공급, SK건설과 천지개발은 대비공사, 대림산업·삼성물산·삼호는 토건공사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태안화력 9, 10호기는 기존 초초임계압 발전소보다 증기압력과 온도를 높여 국내 화력발전소 기술력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플랜트 종합효율이 기존 태안화력 7, 8호기 보다 약 1% 더 높게 설계됐다. 또 연료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탄종을 양호하게 연소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와 함께 발전소 가동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환경설비를 적용한 환경친화발전소로 건설될 예정이다.

남부발전, 청렴도 1위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상호)이 청렴도 조사에서 공기업부문 1위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6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26개 공기업 가운데 남부발전이 유일하게 1등급(9.28점)을 받았다고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2등급에는 한국동서발전(9.02점), 한국공항공사(8.97점), 인천국제공항공사(8.96점), 한국중부발전(8.93점), 한국남동발전(8.86점) 등이 포진했다.

3등급에는 한국석유공사(8.77점), 한국전력공사(8.73점), 한국가스공사(8.68점), 한국서부발전(8.67점), 한국철도공사(8.62점) 등이 속했다.

한국수자원공사(8.43점), 한국광물자원공사(8.41점), 한국도로공사(8.30점) 등은 4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총 627개 기관의 청렴도를 조사했다. 각 기관 민원인 16만여 명과 소속직원 6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뒤, 부패사건 등이 발생한 곳에는 감점을 적용해 종합점수를 산출했다. 학회, 출입기자, 국회 보좌관, 산하기관, 직능단체 관계자 등 정책고객 1만5000여 명에게도 의견을 물었다.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86점이었다.



장주옥 전 한국전력 해외사업본부장이 한국동서발전 사장으로 취임했다. 장 신임사장은 지난달 8일 취임식을 갖고 동서발전 사장으로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장 사장은 한전 자원개발팀장, 해외자원개발처장 및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에너지·자원개발 분야에 전문 역량을 키워온 인물이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동서발전 연료팀장, 기획처장 업무를 맡아 동서발전과 인연을 맺었다.

장 사장은 취임과 함께 ▲창의와 혁신경영 ▲투명과 정도경영 ▲소통과 신뢰경영 ▲미래성장과 글로벌 인재육성 ▲가치공유와 동반성장의 5대 경영방침을 제시했다.

장주옥 동서발전 사장 취임

전력계통 전체가 마비됐을 때 스스로 전기를 생산해 발전소 기능을 살려내는 '자체기동발전기' 들이 정상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거래소(이사장 남호기)는 지난달 25일부로 자체 기동발전기 정기시험을 완료했다. 전력거래소는 전체 계통정전이나 광역정전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를 위해 우리나라를 7개 권역으로 나눠 관련 설비를 이중화했다. 총 14곳에 자체 기동발전기도 구축, 매년 2회에 걸쳐 자체 기동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자체 기동발전기 시험은 5~6월에, 하반기는 10~11월에 이루어졌다.

이번 시험에서는 전력수급에 여유가 없어 당초 계획한 시험을 미루고 재시험을 실시한 곳도 있었다. 전력수요가 뚝 떨어지는 새벽시간대나 주말에 시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자체기동발전기에 '부식돌' 역할을 해주는 비상발전기에 대해서는 전력거래소 관계자 외에도 외부전문가가 입회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자체 기동발전기 시험 완료

외부전문가는 전우실업에서 초빙했다. 전우실업은 한전으로부터 65개 도서 지역의 내연발전기 운영과 보수업무를 위탁 수행해왔다. 전력거래소는 내년 상반기 중에도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해 비상발전기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KPS, 2012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대상 노사협력부문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한전KPS(사장 태성은)는 지난달 23일 서울 소공동 조선히호텔에서 열린 '2012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대상' 시상식에서 협력적 노사문화를 통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사협력부문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언론인협회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등 7개 정부부처에서 후원하는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대상은 지속가능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동반성장에 힘쓰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활동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KPS는 지난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공공부문의 모범적 노사관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로부터 '2011년도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에는 '2011년 노사의 사회적 책임 우수 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현대중, 독립형 LNG 화물창 개발 성공

현대중공업(대표이사 이재성)이 독립형 LNG선 화물창의 독자모델 개발에 성공하며,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선 분야의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2년여의 연구 끝에 독립형 LNG선 화물창의 개발을 완료하고, 일본 선급(NK)으로부터 설계에 대한 기본승인(AIP; Approval In Principle)을 받았다.

LNG선 핵심기술인 화물창의 기술 자립으로 인해 그동안 원천기술을 보유한 외국회사들에게 1척당 100만 달러 정도 지불하던 로열티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현대중공업의 독립형 LNG 화물창은 기존 화물창을 감싸는데 사용하던 평판형

대신 엠보싱 모양의 환형판 자재를 사용, 자재의 수와 중량을 대폭 줄였다. 또 보냉 시스템은 기존 패널을 일일이 부착했던 것에서 스프레이를 뿌려 코팅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공정을 단순화시켰다.

독립형으로 만든 현대중공업의 LNG선 화물창은 선체 제작 후 추가적으로 화물창 공사가 이뤄지는 멤브레인형보다 제작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이외에도 탱크 내부의 칸막이를 이용해 출렁임(sloshing) 현상을 줄여 LNG의 기화현상을 막고, 화물창 내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에 개발한 독립형 LNG 화물창을 '로브-번들 탱크(Lobe-Bundle Tank)'로 명명하고, 최종 테스트를 거친 후 2013년경 상용화할 계획이다. 향후 LNG선, LNG-FPSO(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설비), LPG선, LNG 연료 공급선은 물론 LNG 연료 추진시스템의 대용량 연료 탱크로도 사용될 전망이다.



LS전선에 겹경사가 났다. 구자열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승계한데 이어 창사 50주년이라는 잔치를 맞은 것이다. 때마침 카타르 석유공사로부터 국내 전력 케이블 최대 규모의 수주도 따내 LS전선은 축제 분위기다.

LS전선은 지난달 23일 오후 창사 50주년을 맞아 경기 안양시 호계동 LS타워에서 구자열 회장 등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서는 LS전선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한국전력과 KT, 일본 히타치 전선 등이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50년간 LS전선은 매출과 자산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 1967년 16억 5000만 원이던 매출액은 지난해 말 8조8000억 원으로 5350배 성장했고, 자산 역시 19억3000만 원에서 5조9000억 원으로 3224배 증가했다. LS전선이 지난 50년간 생산에 사용한 구리는 500만t으로 대형 승용차 250만 대에 달하는 무게다. 가장 많이 생산되는 8mm 동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125만km로 지구를 약 300번 도는 거리이고, 지구와 달까지 거리 30배에 달한다.

창사 50주년 맞은 LS전선 '겹경사'... 카타르서 해저 케이블 공사 수주

특히 구 회장이 내년부터 LS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해 명실상부한 LS그룹의 핵심 주력사가 됐다는 것도 기쁜 일이다. 여기에 지난달 19일에는 국내 케이블 전력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5000억 원 규모의 해저 전력 케이블 공사를 카타르 석유공사로부터 따내기도 했다.

포스코에너지, 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에너지



오창관 사장 등 포스코에너지 임직원 50여명이 창립 43주년을 맞아 지난달 2일 인천 서구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주택 개·보수 봉사활동에 나섰다.

포스코에너지 임직원들은 이날 기초생활수급자 10가구를 대상으로 창호, 보일러 배관, 도배, 장판보강공사를 진행했다.

포스코의 종합에너지사인 포스코에너지는 최근 '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에너지'란 사회공헌 슬로건을 만들고 지역사회에 에너지효율 개선, 어린이 대상 에너지교육을 펼치고 있다.

포스코에너지는 지난 4월부터 인천 청라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에너지 교실'을 운영하고, 임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택 개·보수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전선, 1400만 달러 규모 케이블 수주

대한전선은 중동과 동남아 지역에서 1400만 달러 규모의 산업전선과 초고압 케이블을 잇따라 수주했다고 지난달 8일 밝혔다.

중동지역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전력공사에서 발주한 소하이바지역 복합화력 발전소 산업전선 2차 물량으로 900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 특히 이번 수주는 지난 9월에 동일한 지역에서 1000만 달러를 수주한 데 이어 한군데서만 두 달여 사이에 1900만 달러 규모 수주가 이루어졌다.

동남아시아 브루나이 프로젝트는 브루나이의 전력회사인 BPMC에서 발주한 브루나이 전력망 구축을 위한 초고압 케이블 공급 프로젝트로 수주액은 500만 달러에 이른다. KEA